

말씀의 증인

요한복음 1:6-8

-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빈이고 윌링던 교회의 목사 중 한 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요한복음 1:6-8절, 19절을 계속 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의 강림 설교 시리즈에서 만나게 되어 특별히 환영합니다. 간략하게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도래로도 이해됩니다. 두 가지 주요 사건이 메트로 밴쿠버를 변화시켰습니다.

[사진]

- 엑스포 86.
- 2010년 동계 올림픽.

그 당시 저는 밴쿠버에 살지 않았지만, 엑스포 86과 동계 올림픽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행사를 겪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주택 가격, 인구 증가, 사이언스 월드, 스카이트레인 등 밴쿠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아직도 밴쿠버는 이 두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킨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사건의 느낌에 대해 물어보면 자세히 기억하면서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스터, 사진, 구매한 기념품들을 꺼낼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있으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의 부르심
2. 증인의 목적
3. 증인의 겸손

지난주 레이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의 서론을 설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초에 존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며, 이제 그분이 창조 속으로 들어가 죽음과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1장 6절은 흐름에 빛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이 글을 쓴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 위해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증인의 부르심

요한복음 1:6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요한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요한은 1절에서 처음에 쓴 내용과 대조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말씀인 예수님이 태초에 이미 존재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일요일에 레이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의 저자가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한 증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며, 요한복음은 이것을 계속 구별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400년 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로니아 유배 직후, 느헤미야 시대에 쓰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기원전 516년경).

주님께 예배드릴 장소는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마음이 없었으며, 제사장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셨지만, 그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 4:5-6

5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며, 그 후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더 큰 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다려 왔지만, 우리는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 같고, 어쩌면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 안에 있는 불안감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그 많은 수요를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이민자들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마약 위기는 심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념들도 있

습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성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소개됩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이 불임 이어서 아이가 없고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들만의 깊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분향하는 제단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천사가 요한의 부르심에 더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4-17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에서 요한이 부르심이 그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탄생만으로도 기뻐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봅시다. 요한은 그의 백성의 눈에는 큰 자가 아니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일 전에도, 엘리사벳의 태에서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16절과 17절을 보면서, 많이 들던 말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조각들을 보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 신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전에 요한의 부르심과 메시지는 다루어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라 가기 전에, 예수님께 가기 전에, 우리는 요한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진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아야 했을까요?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쁨이 되기 전에 기소(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요한의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행위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 같은 우리는 길을 잃었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우리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우리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자비의 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연재해에 대해 과학자들은 여전히 더 나은 경고 시스템을 고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화산, 지진 또는 쓰나미와 관련하여 과학자들은 여전히 인류에게 이러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경고를 보낼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경고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무시하거나 경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요한의 경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 당신의 관계, 세금을 속이는 것, 몰래 보는 것들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이 피하고 싶어 하는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기꺼이 짊어지실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은 그것을 자신에게 지우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죄가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증인의 목적

요한복음 1:7로 가서 저와 같이 표시할 단어들은 "증인", "증인", "빛에 대하여"입니다. 앞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 신약의 첫 세 복음서)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을 법정처럼 구성합니다. 모든 법정과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데려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부름받은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이 주제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36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 행하신 일이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37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는, 아들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39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26-27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 증언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요한부터 시작하여 모든 증인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늦잠을 자고, 침대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깨우러 오는 아이가 없고(아, 옛날이 좋았네요), 계획이 없는 주말 아침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블라인드를 열고 불을 켜면, 여러분의 첫 반응은 "블라인드를 닫아!" 또는 "불을 꺼!"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 처럼, 그는 "아니,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까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침대에 누워서 빛을 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빛을 보고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 어둠 속의 사람들도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은 여러분을 1~5절로 되돌려, "말씀", 즉 그분이 하나님이며, 생명이시며, 그냥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요한의 전 생애는 예수님을 위한 레드 카펫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장 4~5절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제 생각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군중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26-27

2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군중은 요한을 떠나 예수께로 가고 있었고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찾아가는 분,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19절부터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명확히 하자면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증거가 아닙니다.

요한에게 간 사람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싶어 했고,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 영상의 할머니와 같습니다.

[영상] 할머니를 지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아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에 따르면 -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 또는 선한 도덕 교사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의 빛이며 우리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 아내 로라는 대가족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사촌이 가족 모임에 데이트 상대를 데려올 때마다 저는 지정된 심문관입니다.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왜 그/그녀를 사랑하니?"

"예쁘니까요."

"나도 나름 예쁜데, 나도 사랑하니?"

그러면 그들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내가 아름다워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성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로라는 말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주님의 종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31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입니다.

3. 증인의 겸손

요한복음 1:8로 넘어가서 이전 구절에서 이미 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확실하지 않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한 주석가가 말했듯이, "요한의 설교는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했지만,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변화를 위한 능력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변화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21-22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화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요한이 예수보다 약 6개월 더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관습에 따르면, 제가 자란 민족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존경과 경의는 연장자가 받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심지어 가죽 띠를 두르고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나실인 서원을 했다고 믿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하거나 성별하는 서약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제 딸들이 광야에서 온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면, 그가 길게 늘어진 드레드락을 하고 벌레와 꿀을 먹으며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면, 그 관계는 즉시 끝이 날 겁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에게는 큰 희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는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30

하지만 누가 복음 7:18에서 요한이 감옥에 있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35, 26, 29, 61장의 구절로 대답하십니다. 요한이 암송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절입니다. 모두 메시아적인 구절로,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8을 함께 읽고 "증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표시하시면, 세 번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증인"이라는 용어는 순교자로 번역됩니다. 순교자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눈먼 자가 본다.
- 절름발이가 걷는다.

- 나병환자가 깨끗해진다.
- 귀머거리가 듣는다.
- 죽은 자가 살아난다.
-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지만, 그는 예수님께 감옥에서 풀어 달라거나, 참수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순교자, 증인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인과 그들이 대표하는 정부에 모든 믿음을 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라면, 이곳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윌링던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전과 이후의 모든 정치인과 정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왔다가 갈 것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모든 희망을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두었고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세례 요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 당신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요한, 당신은 태초부터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는데, 당신은 그분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요한, 무엇이었나요? 저는 당신에게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들었던 것을 압니다. 당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번영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은 것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친구들이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도시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나라가 당신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이 당신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었으며,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리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제 질문을 거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성경은 여전히 그분의 성육신, 우리의 죄를 없애는 그분의 죽음,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함으로 인한 그분의 재림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부르심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2.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신, 스스로 인정받기를 구하는 때가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3. 더 큰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려놓도록 부르시는 것이 무엇 일까요?

축도:

마태복음 5:14-16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